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33 주차 (14:1~14:17)

(2015년 9월 6일 - 2015년 9월 12일)

(제3권 33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33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9 월 6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다!(주일)

오늘의 본문 (요 14:1~11)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너희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하라 (Μὴ ταρασσέσθω ὑμῶν ἡ καρδία·)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εἰς τὸν θεὸν καὶ εἰς ἐμὲ πιστεύετε.)
-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ἐν τῇ οἰκίᾳ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μοναὶ πολλαὶ εἰσὶν·)
 만약 그렇지 않다면 (εἰ δὲ μή·)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무엇이든 미리 말했겠지?
 (εἶπον ἂν ὑμῖν ὅτι πορεύομαι ἐτοιμάσαι τόπον ὑμῖν·)
- (3절) 그리고 만약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장소를 예비한다면 (καὶ ἐὰν πορευθῶ καὶ ἐτοιμάσω τόπον ὑμῖν·)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받아 들일 것이다 (πάλιν ἔρχομαι καὶ παραλήμψομαι ὑμᾶς πρὸς ἐμαυτόν·)
 그 결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될 것이다 (ἵνα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καὶ ὑμεῖς ᾔτε.)
- (4절)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고 있고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καὶ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οἴδατε τὴν ὁδόν·)
- (5절)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Θωμᾶς·)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κύριε, οὐκ οἴδαμεν ποῦ ὑπάγεις·)
 어떻게 우리가 능히 그 길을 알겠습니까? (πῶς δυνάμεθα τὴν ὁδὸν εἰδέναι·)
- (6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ἐγὼ εἰμι ἡ ὁδὸ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καὶ ἡ ζωή·)

- 만약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
(οὐδείς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εἰ μὴ δι' ἐμοῦ.)
- (7절) 만약 너희들이 나를 알아 왔다면 (εἰ ἐγνώκατέ με,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γνώσεσθε.)
그리고 지금부터 그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ἄρτι ᾗρτι γινώσκετε αὐτὸν)
그리고 그를 보았을 것이다 (καὶ ἑώρακατε αὐτόν.)
- (8절)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Φίλιππος·)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 주십시오 (κύριε,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καὶ ἄρκει ἡμῖν.)
- (9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수많은 시간을 너희와 함께 했다 (τοσούτω χρόνῳ μεθ' ὑμῶν εἰμι.)
그리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빌립아? (καὶ οὐκ ἐγνώκας με, Φίλιππε·)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ὁ ἑώρακὼς ἐμὲ ἑώρακεν τὸν πατέρα·)
어떻게 네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하느냐? (πῶς σὺ λέγεις·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οὐ πιστεύεις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ήρ ἐν ἐμοὶ ἔστιν·)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τὰ ῥήματα ἃ ἐγὼ λέγω ὑμῖν ἄπ' ἐμαυτοῦ οὐ λαλῶ·)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ὁ δὲ πατήρ ἐν ἐμοὶ μένων ποιεῖ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μοι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ήρ ἐν ἐμοί·)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일 때문에 믿으라 (εἰ δὲ μή, διὰ τὰ ἔργα αὐτὰ πιστεύ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7절을 읽으십시오. 도마의 질문에 답을 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들이 나를 알아 왔다면, 나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보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만약 나를 알아 왔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조건문입니다. 아버지를 아는 전제 조건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알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조건문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실제로 경험하고 또 그 후 일어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수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삼일만에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들 눈 앞에서 실제로 일어났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자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이 오랜 세월 믿어 왔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조건절을 사용하여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선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시제를 역순으로 사용하여 설명하십니다. 7절의 결과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종의 워드플레이일 수 있으나 아마도 8절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라는 요청에 대한 대답을 미리 암시하고자 이렇게 시제를 역순으로 설명하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미래]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γνώσεσθε.)

[현재] 그리고 지금부터 그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ἄρ' ἄρτι γινώσκετε αὐτόν)

[현재완료] 그리고 그를 보았을 것이다 (καὶ ἑώρακατε αὐτόν.)

이 구절을 시제순으로 다시 써 보면,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를 지금까지 보아왔으며, 지금부터 깨달아가고 있고,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입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 하나가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고, 그분의 가르침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아 온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그 자체가 복음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얼마 뒤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 잡히시고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의 영을 보내 주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결과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도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제자들 눈 앞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 많은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무분별하고 질서 없이 혼재되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를 높였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과 모든 가르침은 모두 성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지요. 예수님은 한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기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승천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 우리에게 보내 주신 분입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두 분이 함께 성령님을 보내 주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영 외에 예수의 영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성령 안과 그리스도 안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해석하여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같이 보였던 예수님의 사역 모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도록 도와 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여러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하도록

록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이 오신 일차적인 목적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 오신 일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 간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보아왔다는 것, 그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앞으로 그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인내가 바닥을 드러낼 때 그가운데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을 또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더 많은 시편을 남겼고 그 시편의 내용은 모두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투쟁하듯 치열하게 살아가는 고단한 삶의 자락을 잠시 접어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낭만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환타지도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의 눈 앞에 펼쳐진 현실 그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계시되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4:1~11)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너희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하라 (Μὴ ταρασσέσθω ὑμῶν ἡ καρδία·)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εἰς τὸν θεὸν καὶ εἰς ἐμὲ πιστεύετε.)
-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ἐν τῇ οἰκίᾳ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μοναὶ πολλάι εἰσίν·)
 만약 그렇지 않다면 (εἰ δὲ μή·)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무엇이든 미리 말했겠지?
 (εἶπον ἂν ὑμῖν ὅτι πορεύομαι ἐτοιμάσαι τόπον ὑμῖν·)
- (3절) 그리고 만약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장소를 예비한다면 (καὶ ἐὰν πορευθῶ καὶ ἐτοιμάσω τόπον ὑμῖν·)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받아 들일 것이다 (πάλιν ἔρχομαι καὶ παραλήμψομαι ὑμᾶς πρὸς ἐμαυτόν·)
 그 결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될 것이다 (ἵνα ὅπου ἐγώ καὶ ὑμεῖς ἦτε.)
- (4절)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고 있고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καὶ ὅπου [ἐγώ] ὑπάγω οἴδατε τὴν ὁδόν·)
- (5절)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Θωμᾶς·)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κύριε, οὐκ οἶδαμεν ποῦ ὑπάγεις·)
 어떻게 우리가 능히 그 길을 알겠습니까? (πῶς δυνάμεθα τὴν ὁδὸν εἰδέναι·)
- (6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ἐγώ εἰμι ἡ ὁδὸ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καὶ ἡ ζωή·)

- 만약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
(οὐδείς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εἰ μὴ δι' ἐμοῦ.)
- (7절) 만약 너희들이 나를 알아 왔다면 (εἰ ἐγνώκατέ με,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γνώσεσθε.)
그리고 지금부터 그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ἄρτι γινώσκετε αὐτὸν)
그리고 그를 보았을 것이다 (καὶ ἑώρακατε αὐτόν.)
- (8절)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Φίλιππος·)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 주십시오 (κύριε,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καὶ ἄρκει ἡμῖν·)
- (9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수많은 시간을 너희와 함께 했다 (τοσούτω χρόνῳ μεθ' ὑμῶν εἰμι·)
그리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빌립아? (καὶ οὐκ ἐγνώκας με, Φίλιππε·)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ὁ ἑώρακώς ἐμὲ ἑώρακεν τὸν πατέρα·)
어떻게 네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하느냐? (πῶς σὺ λέγεις·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οὐ πιστεύεις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ήρ ἐν ἐμοὶ ἔστιν·)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τὰ ῥήματα ἃ ἐγὼ λέγω ὑμῖν ἄπ' ἐμαυτοῦ οὐ λαλῶ·)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ὁ δὲ πατήρ ἐν ἐμοὶ μένων ποιεῖ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μοι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ήρ ἐν ἐμοί·)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일 때문에 믿으라 (εἰ δὲ μή, διὰ τὰ ἔργα αὐτὰ πιστεύ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8~9절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난 후 빌립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많은 시간은 너희와 함께 했다. [그런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어떻게 네가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느냐?”

제자들은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때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한 제자(사도 요한)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르기로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빌립을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도 바로 그 빌립이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의 집(벳새다)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던 3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나사렛으로부터 나온 요셉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빌립의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그를 예수님께 데려간 빌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가 처음 예수님을 알았던 그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3년이나 따랐던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록된 그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나온 요셉의 아들 예수님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빌립에 관해 매우 의미심장한 기록을 몇 군데 남겨 놓았습니다. 빌립은 소개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1장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빌립과 안드레는 항상 비슷한 시점에 등장할 뿐 아니라 하는 역할도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빌립은 이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도 정작 그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메시야,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가져올 분 정도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들도 빌립과 비슷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진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모든 일이 잘 해결되고 만사형통할 것처럼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그런 분으로 알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의 척도는 교회다닌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은 신령한 체험들을 했는지 등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척도는 우리가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 진리이며 유일한 길로 알고, 생명으로 믿고 따르고 있나요?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현재 예수님이 당신에게 정말 어떤 분이신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그 말에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수많은 시간들을 너희와 함께 보냈는데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빌립아?”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네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느냐?” 입니다. 아버지를 보여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언뜻 듣기에는 마치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되며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그냥 단순한 이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기존의 유대교와 조금 다르긴 하나 역시나 그와 비슷한 종교적 가르침 중의 하나로 이해한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 구약의 모든 문제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땅에 드러내셨으며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땅에 전하신 거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예수님의 고별사의 한 부분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14:6)는 선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빌립에게 질문한 이 두 질문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며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 가치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율법과 죄에 얽매인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그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시며, 우리를 그의 나라 시민으로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이 질문은 바로 우리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해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외치고 있는 건 아닌지 각자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4:1~11)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원문해석하기

- (1절) 너희 마음이 근심되지 않게 하라 (Μὴ ταρασσέσθω ὑμῶν ἡ καρδία·)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εἰς τὸν θεὸν καὶ εἰς ἐμὲ πιστεύετε.)
- (2절) 나의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ἐν τῇ οἰκίᾳ τοῦ πατρὸς μου μοναὶ πολλάι εἰσίν·)
만약 그렇지 않다면 (εἰ δὲ μή·)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무엇이든 미리 말했겠지? (εἶπον ἂν ὑμῖν ὅτι πορεύομαι ἐτοιμάσαι τόπον ὑμῖν·)
- (3절) 그리고 만약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장소를 예비한다면 (καὶ ἐὰν πορευθῶ καὶ ἐτοιμάσω τόπον ὑμῖν·)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받아 들일 것이다 (πάλιν ἔρχομαι καὶ παραλήμψομαι ὑμᾶς πρὸς ἐμαυτόν·)
그 결과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있게 될 것이다 (ἵνα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καὶ ὑμεῖς ᾔτε.)
- (4절) 그리고 내가 [지금] 떠나고 있고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καὶ ὅπου [ἐγὼ] ὑπάγω οἴδατε τὴν ὁδόν·)
- (5절) 도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Θωμᾶς·)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κύριε, οὐκ οἶδαμεν ποῦ ὑπάγεις·)
어떻게 우리가 능히 그 길을 알겠습니까? (πῶς δυνάμεθα τὴν ὁδὸν εἰδέναι·)
- (6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ἐγὼ εἰμι ἡ ὁδὸ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καὶ ἡ ζωή·)

- 만약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
(οὐδείς ἔρχεται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εἰ μὴ δι' ἐμοῦ.)
- (7절) 만약 너희들이 나를 알아 왔다면 (εἰ ἐγνώκατέ με,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τὸν πατέρα μου γνώσεσθε.)
그리고 지금부터 그를 알게 될 것이다 (καὶ ἄρ' ἄρτι γινώσκετε αὐτόν)
그리고 그를 보았을 것이다 (καὶ ἑώρακατε αὐτόν.)
- (8절) 빌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Φίλιππος·)
주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κύριε,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καὶ ἄρκει ἡμῖν·)
- (9절)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λέγει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내가 수많은 시간을 너희와 함께 했다 (τοσούτῳ χρόνῳ μεθ' ὑμῶν εἰμι·)
그리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빌립아? (καὶ οὐκ ἐγνώκας με, Φίλιππε·)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ὁ ἑώρακώς ἐμὲ ἑώρακεν τὸν πατέρα·)
어떻게 네가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하느냐? (πῶς σὺ λέγεις· δεῖξον ἡμῖν τὸν πατέρα·)
-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οὐ πιστεύεις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ήρ ἐν ἐμοὶ ἔστιν·)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τὰ ῥήματα ἃ ἐγὼ λέγω ὑμῖν ἄπ' ἐμαυτοῦ οὐ λαλῶ·)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ὁ δὲ πατήρ ἐν ἐμοὶ μένων ποιεῖ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πιστεύετε μοι ὅτι ἐγὼ ἐν τῷ πατρὶ καὶ ὁ πατήρ ἐν ἐμοί·)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일 때문에 믿으라 (εἰ δὲ μή, διὰ τὰ ἔργα αὐτὰ πιστεύετε.)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0~11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일 때문에 믿으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두뇌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신비를 이해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신비한 연합을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서로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이 개념을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만 국한하여 설명하지 않고 교회와 삼위일체 하

나눔과의 신비한 연합도 동일하게 이러한 페리코레스시스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말씀 외에 뒤이어 계속 이어지는 설명에서도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 장 16-20 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¹⁷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¹⁸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¹⁹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²⁰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14:16-20).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페리코레스시스)
- 16-17절: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할 것 (성령 하나님과 교회의 페리코레스시스)
- 18-19절: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의 페리코레스시스)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이 존재하십니다(고전 3:16참조).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단지 성령과 교회의 연합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연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와 연합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연합되어 페리코레스시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어(거듭남),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회개), 우리의 죄가 사해져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려 주시며(칭의),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여(성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도록(페리코레스시스)하여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영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러한 신비한 연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레마)은 곧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여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지 자신의 몸과 입을 아버지 하나님께 빌려드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곧 자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고, 모든 이적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며, 그가 앞으로 당할 모든 수난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만들 교회 또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이나 가르침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따라하거나 재현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 보다는 ‘바로 이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가 마땅히 행할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도 온갖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이 하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이와 관련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건져 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그러한 이적이 가능하나 아니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의미와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런 심오한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기는커녕 모든 말씀을 피상적이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불가피하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은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만 온전히 깨닫게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당신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게 되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을 행한다는 것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14:12~17)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원문해석하기

-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τὰ ἔργα ἃ ἐγὼ ποιῶ κάκεινος ποιήσει)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καὶ μείζονα τούτων ποιήσει)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ὅτι ἐγὼ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πορεύομαι·)
- (13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ὅτι ἂν αἰτήσητε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τοῦτο ποιήσω·)
 그 결과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πατήρ ἐν τῷ υἱῷ·)
- (14절) 만약 내 이름으로 나를,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행할 것이다
 (ἐάν τι αἰτήσητέ με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ἐγὼ ποιήσω·)
- (15절)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Εἰν ἠγαπᾶτέ με·)
 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τὰς ἐντολάς τὰς ἐμὰς τηρήσετε·)
- (16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다 (καὶ ἐρωτήσω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καὶ ἄλλον παρόκλητον δώσει ὑμῖν·)
 그 결과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ἵνα μεθ' ὑμῶν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ᾤ.)
- (17절) 진리의 영,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분이다.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ὁ κόσμος οὐ δύναται λαβεῖν·)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주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한다
 (ὅτι οὐ θεωρεῖ αὐτὸ οὐδὲ γινώσκει·)
 [그런데] 너희는 그를 깨닫을 것이다 (ὁμοίως γινώσκετε αὐτό·)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ὅτι παρ' ὑμῖν μένει καὶ ἐν ὑμῖν ἔσ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2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고별사)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이란 듣기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갖가지 이적들을 포함한 모든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들릴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든 자들도 고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기서 ‘이 일’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이적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이적을 제자들이나 우리들도 행할 수 있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또 여기에 쓰인 헬라어 문법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 당신이 잡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곳은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그 만찬장에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만찬장에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손수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식사 도중 제자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팔 것이라 말씀하신 후 곧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거라는 말씀에 한없이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드디어 그들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알리는 고별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무덤에 들어가 사흘 동안 갇혀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사람들로 부터 칭송을 받을만한 멋진 사역을 행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런 제자들을 향한 가슴아픈 안타까움을 절절히 표현하신 것이지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을 말씀하실 때는 현재형 동사를,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행할 일을 말씀하실 때는 미래형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바로 그 일들입니다. 따라서 ‘이 일’이란 지금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될 일, 즉 그날 밤과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타당합니다. 헬라어든 영어든 진행형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일이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할 때 사용되는 시제니까요. 결국 유월절 전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오후까지의 일들에 국한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하게 될 일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 심지어 죽음까지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당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미래 서술형 동사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예언이라기 보다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 설명하고 계신 것이지요. 지금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는 복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면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속히 없애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속삭이는 자녀를 둔 분들은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은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측컨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도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자신의 제자들만 남겨 놓고 떠날 수밖에 없어 너무도 가슴아파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같은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를 믿는 사람은...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며 그 심정을 당신의 말로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고난없이 평안히 살아가고 있음을 인해 감사하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선택 사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만약 당신이 이제까지 손쉬운 선택 과목만 수강하였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힘들고 어려운 필수 과목을 들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믿음생활을 돌아보고 얼마나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 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무엇을 구하는가?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14:12~17)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원문해석하기

-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 (13절)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τὰ ἔργα ἃ ἐγὼ ποιῶ κάκεινος ποιήσει)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καὶ μείζονα τούτων ποιήσει)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ὅτι ἐγὼ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πορεύομαι.)
- (14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ὅτι ἂν αἰτήσητε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τοῦτο ποιήσω.)
그 결과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πατήρ ἐν τῷ υἱῷ.)
- (15절) 만약 내 이름으로 나를,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행할 것이다 (ἐάν τι αἰτήσητέ με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ἐγὼ ποιήσω.)
- (16절)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Εἰάν ἀγαπᾶτέ με,)
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τὰς ἐντολάς τὰς ἐμὰς τηρήσετε.)
- (17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다 (καὶ ἐρωτήσω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καὶ ἄλλον παράκλητον δώσει ὑμῖν.)
그 결과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ἵνα μεθ' ὑμῶν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ᾤ.)
- (18절) 진리의 영,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분이다.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ὁ κόσμος οὐ δύναται λαβεῖν.)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주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한다 (ὅτι οὐ θεωρεῖ αὐτὸ οὐδὲ γινώσκει.)
[그런데] 너희는 그를 깨닫을 것이다 (ὁμοίως γινώσκετε αὐτό.)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ὅτι παρ' ὑμῖν μένει καὶ ἐν ὑμῖν ἔσ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3-1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형적인 교차 배열 구조 (Chiastic structure)로 쓰였습니다. 이 구조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ὃ **τι ἂν αἰτήσητε**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τοῦτο ποιήσω.)

B: 그 결과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πατήρ ἐν τῷ υἱῷ.)

A: 만약 내 이름으로 나를,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행할 것이다

(**ἐάν τι αἰτήσητέ** με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ἐγὼ ποιήσω.)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나아가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지 오늘은 이 질문을 놓고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들 이 말씀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뜻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쓰인 단어들은 전혀 기도니 응답이니 하는 말에는 쓸 수 없는 말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에서 ‘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이테오(αἰτέω)’입니다. 이 단어는 상대방이 이미 주기로 약속한 것을 당연히 청구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아, 내일 집에 들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겠다. 내가 깜빡할 수도 있으니 꼭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라!’라고 말했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주기로 한 용돈을 달라고 청할 것입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아이테오입니다. 이 아이테오가 가장 잘 표현된 곳이 누가복음 11장 9절~13절 말씀입니다.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 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 11:9-13).

이 짧은 문장에서 예수님은 다섯 번의 아이테오를 사용하셨습니다. 매 절마다 이 말씀을 넣어서 말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테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약속된 권리를 행사하는 ‘청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청구’의 개념을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도는 확정적인 약속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자신 앞에 펼쳐진 현실을 놓고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앞에서 잠잠히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청구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기로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약속된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과 같은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15~16절을 읽으십시오.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Εἰν ἄγαπάτέ με,)
 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τὰς ἐντολὰς τὰς ἐμὰς τηρήσετε.)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다 (καὶ ἠρώτησω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καὶ ἄλλον παρόκλητον δώσει ὑμῖν.)
 그 결과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ἵνα μεθ’ ὑμῶν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이지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이고, 그 요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⁵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행1:45).

여기서도 예수님은 일관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자 약속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4절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¹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²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³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⁴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14).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약속된 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어 그들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령은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후반절을 읽으십시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나요? 남들에 비해 하나님이 나만 못살게 군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늘 나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나의 의로운 삶을 남들이 알아보지 못해 속상해하지는 않나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강요당하는 불이익은 없나요?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14:12~17)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원문해석하기

-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τὰ ἔργα ἃ ἐγὼ ποιῶ κάκεινος ποιήσει)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καὶ μείζονα τούτων ποιήσει)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ὅτι ἐγὼ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πορεύομαι.)
- (13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ὅτι ἂν αἰτήσητε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τοῦτο ποιήσω.)
 그 결과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πατήρ ἐν τῷ υἱῷ.)
- (14절) 만약 내 이름으로 나를,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행할 것이다
 (ἐάν τι αἰτήσητέ με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ἐγὼ ποιήσω.)
- (15절)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Εἰν ἠγαπᾶτέ με),
 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τὰς ἐντολὰς τὰς ἐμὰς τηρήσετε.)
- (16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다 (καὶ ἐρωτήσω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καὶ ἄλλον παράκλητον δώσει ὑμῖν.)
 그 결과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ἵνα μεθ' ὑμῶν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ᾤ.)
- (17절) 진리의 영,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분이다.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ὁ κόσμος οὐ δύναται λαβεῖν.)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주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한다
 (ὅτι οὐ θεωρεῖ αὐτὸ οὐδὲ γινώσκει.)
 [그런데] 너희는 그를 깨닫을 것이다 (ὁμοίως γινώσκετε αὐτό.)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ὅτι παρ' ὑμῖν μένει καὶ ἐν ὑμῖν ἔσ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5~17을 읽으십시오. 15절에서 예수님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며 명령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이기보다는 예수님 그 자체가 새 계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 계명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온전히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놀리워지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이 말씀도 전혀 명령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ἀλλὰ λήμψεθε δύναμιν)
성령이 너희에게 오셨을 때 (ἐπελθόντος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ἐφ' ὑμᾶς)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καὶ ἔσσεσθέ μου μάρτυρες)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며
(ἐν τε Ἱερουσαλὴμ καὶ ἐν πάσῃ τῇ Ἰουδαίᾳ καὶ Σαμαρείᾳ καὶ ἕως ἑσχάτου τῆς γῆς)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으로 규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라 말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명령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능력이나 재능이 모자라서, 의지가 부족해서 등등 핑계를 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한심해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은 명령이 아니라 실존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존재는 180도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우리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적 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시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며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존재를 증인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 대명령’이라 부르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20상).

이 말씀도 헬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단 한개의 명령어만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식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말씀의 원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면서 (πορευθέντες οὖν)
 모든 이방인들을 제자 삼으라 (μαθητεύσατε πάντα τὰ ἔθνη.)
 그들을 세례하면서 (βαπτίζοντες αὐτούς)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εἰς τὸ ὄνομα τοῦ πατρὸς καὶ τοῦ υἱοῦ καὶ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그들을 가르치면서 (διδάσκοντες αὐτούς)
 내가 너희에게 명했던 모든 것을 지키도록 (τηρεῖν πάντα ὅσα ἐνετειλόμην ὑμῖν.)

예수님의 명령은 단 한가지 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제자 삼으라” 그러기 위해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어 있고, 그들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는 것과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제자를 삼는 방식인 셈이지요.

예수님의 명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지요. 우리들도 교인들을 교육하여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의 나라 시민으로 이끄는 일은 오직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인만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명령을 지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4 장 15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지요. 인간이 정한 방법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상 숭배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걸까요? 모든 걸 제쳐놓고 교회 일에 매달리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한 가지로 대답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된 결과이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배설물임을 깨닫고 그가 내민 구원의 손을 얹지없이 붙잡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은 그의 ‘무한한 은혜안에 머물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화롭게 한 그 영광에 아무런 기여도 없이 동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명령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혜의 법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파라클레토스' (παράκλητος)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14:12~17)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원문해석하기

-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Ἀμὴν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έ τὰ ἔργα ἃ ἐγὼ ποιῶ κάκεινος ποιήσει)
 그리고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καὶ μείζονα τούτων ποιήσει)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ὅτι ἐγὼ πρὸς τὸν πατέρα πορεύομαι.)
- (13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καὶ ὅτι ἂν αἰτήσητε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τοῦτο ποιήσω.)
 그 결과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ἵνα δοξασθῇ ὁ πατήρ ἐν τῷ υἱῷ.)
- (14절) 만약 내 이름으로 나를,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행할 것이다
 (ἐάν τι αἰτήσητέ με ἐν τῷ ὀνόματί μου ἐγὼ ποιήσω.)
- (15절)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Εἰν ἠγαπᾶτέ με),
 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τὰς ἐντολάς τὰς ἐμὰς τηρήσετε.)
- (16절)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겠다 (καὶ ἐρωτήσω τὸν πατέρα)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καὶ ἄλλον παράκλητον δώσει ὑμῖν.)
 그 결과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ἵνα μεθ' ὑμῶν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ᾤ.)
- (17절) 진리의 영,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분이다. (τὸ πνεῦμα τῆς ἀληθείας, ὃ ὁ κόσμος οὐ δύναται λαβεῖν.)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주목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깨닫지도 못한다
 (ὅτι οὐ θεωρεῖ αὐτὸ οὐδὲ γινώσκει.)
 [그런데] 너희는 그를 깨닫을 것이다 (ὁμοίως γινώσκετε αὐτό.)
 왜냐하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ὅτι παρ' ὑμῖν μένει καὶ ἐν ὑμῖν ἔστ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5~17 절을 읽으십시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좀 더 깊은 묵상을 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셔서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나아가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7 절에 따르면 이 세상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전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온전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성령님은 인격이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막연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월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분만을 성령님으로 인식하다보니 교인들 사이에 나타나는 초월적인 현상들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국한하여 성령님을 인식하거나 또는 성령님을 체험하기 위해 그러한 초월적인 현상들을 쫓아다니는 것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신앙 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믿는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과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ἄλλος παράκλητος(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와 ‘보혜사’라는 의미 둘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보혜사가 성령님 한 분만이 아니고 다른 보혜사 중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보혜사가 두 분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혜사’=‘성령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보혜사 또는 보혜사 역할을 하는 분이 더 계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외에 다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성경에서 유독 요한만 사용한 단어인데 요한은 이 단어를 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책(요한복음, 요한 1, 2, 3 서, 요한계시록)에서 다섯 번 사용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네 번 그리고 요한 1 서에 한 번 사용하였지요. 그중 요한일서에서 파라클레토스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여기서 대언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 거지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우리 스스로 씻거나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주는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의 역할을 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사탄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

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신 거지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아가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까지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그 구원을 어떻게 체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그 구원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같은 추한 죄인이 말이지요. 그렇기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변호하고 있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일까요? 이 단어는 곁에서 변호해주는 자, 옹호자, 돕는 자, 중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돕는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파탄 지경의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²⁵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²⁶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 14:25-26).

“²⁶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요 15:26).

“⁷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⁹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¹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¹¹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¹²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¹³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6:7-13).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동안 지은 죄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행위들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 모든 생각이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인간의 교훈이 아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니라 생명책이며 이 말씀이 곧 진리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음도 알게 되지요.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당신은 어떠한가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나요? 그가 당신을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 진리로 인도하셨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을 회고해 보고 그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